

## 제 28 장 사도행전 Tape #8117

우리가 주님, 당신을 기다리며 함께 모였으며, 우리의 삶에 당신의 영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주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찬양을 노래하면서,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사오니, 오늘밤 우리의 삶에 행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당신의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자신과 이 예배를 오직 헌신하며, 당신의 역사를 요청합니다. 주님, 고등학교에 다니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캠프에 올라가 있음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요청하기는, 첫날부터 그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내내, 당신이 이 주간에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신 일을 당신께서 그들의 삶에 놀랍게 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에게서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쳐주소서. 그리고 주님, 당신을 따르고, 의의 일들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갈급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그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 우리는 해변에 있는 바울을 보고서 떠났는데, 해안에 심한 파도가 내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의 맹렬함을 피하고 있는 배 안에 있던 승객들이 있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비록 배는 파괴되었으나, 사람의 생명은 잃지 않았습니다.

**1 절 “그들이 피신한 뒤에,”** (심하게 밀려오는 파도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있던 배에서 육지로 안전하게 도망한 때를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 섬은 멜리테라는 섬이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 폭풍우 가운데 크레테를 출발하여 쪽 가서, 14 일 동안, 지중해를 가로질러, 당연히 시실리의 남쪽인 멜리테 섬으로 물러갔습니다.

**2 절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매 미개한 백성이,”** (개역의 ‘토인’이라는 용어를 킹 제임스에서는 ‘미개한’이라고 썼습니다. 이 용어 ‘미개한’은 헬라어 **barbaro**”를 번역한 것이지만, 현대의 영어에서 일종의 불행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어를 말할 수 없던 모든 자들을 ‘미개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말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쓰인 일종의 헬라어의 은어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했던 언어 중에 헬라어가 가장 아름답고, 시적이고, 물 흐르듯 부드럽다고 믿었기에, 만약 헬라어를 말할 수 없다면, 그들은, 음, 당신은 미개인이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당신의 소리가 그들에게 매우 이국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것을 단지 미개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개인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느낌은 마치 야만인과 같이 반쯤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멜리테에 살고 있던, 멜리테의 원주민,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이라는 말조차도 가끔 일종의 원시인이라는 것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당신이 캘리포니아 원주민이라고 말해진다면, 그들은 멜리테의 원주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것은 날씨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14 일 동안이나 거센 폭풍우 속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멜리테 섬의 해변 위에 밀려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비가 오고 추웠습니다. 파도만이 밀려왔을 뿐입니다. 그들은 흠뻑 젖어있었기에, 그것을 약간 말리고,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모닥불이 피워졌다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3 절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매달리더라.”** 자, 바울은 주변에 그냥 서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불을 지피려고 하니, 바울이 불을 살리려고 장작을 모아 왔습니다. 그는 그냥 쉽게 참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위대한 사역을 했을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어떤 일을 할 때, 손에 먼지를 묻히는 것,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생각에, 사역에 있어 우리에게 진짜 한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들을 우유 빛이 나는 수건 안에서 지내도록 의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과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으로 일을 했다고 말했으니, 그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장작을 모으는 찬한 일에, 불을 지피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가 한 다발의 장작을 던지자, 매우 독기가 서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공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독사들 중 하나에게 물렸으면, 즉시 땅에 쓰러져 몸을 뒤틀고, 부어올라서 죽는 것을 이 백성들은 아주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4 절 “미개한 사람들이 이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공의의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니,”** 바울이 분명히 어떤 흉악한 죄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5 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매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여러 면에서, 바울은 나의 일종의 호감이 가는 영웅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당신도 알지만, 그는 모든 것에 흥분이나 하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허둥대질 않습니다. 그는 단지 불 속에 그것을 흔들어 떨어버렸던 것입니다.

**6 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붓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리더니,”** (그들은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들은 반드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 죽는 것을 보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

자기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해가 없음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말하기를 그가 신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가 전혀 어떤 해악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자, 그 때 그들은, 그가 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하기 쉬운 세상이죠. 처음에는 그를 흉악한 살인자로 생각하더니, 지금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알지요. 가끔 당신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또한 호색꾼도 될 수 있습니다. 감언이설의 세상, 아침의 세상, 영광의 세상, 이렇게 자주 변하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부진에 해매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매년 방송 안내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도록, 그의 이름을 알리곤 하면, 그들은 구식의 스톱프 춤[역자, 빠른 박자로 발을 구르는 재즈 음악]을 출 것이며, 흥분해서 이 사람이 벽을 치는 그 한 개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가 지속된 부진에 빠지면,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팬들은 가버리는, 그의 이름이 알려진 그 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야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대만큼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준비되어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은 영광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나, 내일은 당신 뒤에서 야유로 새들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어리석은 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호의는 속이는 것이 됩니다.

**7 절 “그 지역에,”** (배가 난파된 동일한 지역입니다.) **“이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는 의심할 것 없이, 이 지역을 관장하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8 절 “보블리오 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 설사로 앓아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매,”** **9 절 “이 일이 있던 뒤에 섬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은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몰고 간 폭풍우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주님께서 그 수레바퀴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분께서 그 폭풍우를 인도하셨단 말이지요. 그 분께서 그 폭풍우 속에서 바울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에 복음을 들을 마음을 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바울을 멜리테 섬으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비록 큰 비극처럼 보였지만, 그 장면 뒤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바울에게 놀라운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폭풍우에서 살아남으리라는 소망조차 포기했고, 바울도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용기를 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갈 것이라고 확인해 주셨으며, 그는 분명 카이사르 앞에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크레테의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멜리테 섬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주님의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만약 당신들이 그 해의 그 때에 떠날 것 같으면, 인지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그들이 자기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고 화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장면 뒤로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 번,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종종 불리한 상황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비극처럼 보이고, 끝장 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 그 상황에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헌신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것으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실 계획과 목적과 사역을 가지고 계시니까 비극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왕국에서 그 분과 함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고, 으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헌신과 복종의 자리로 당신을 데려가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당신 안에서 일할 계획을 가지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어려움과 폭풍우를 기꺼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독이 있는 독사가 바울을 동여매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의 생명 안에 일할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이 사람들이 깨닫도록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생명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이 있는 독사가 바울을 동여매지 않았는데, 그가 아무 해도 없다는 듯이 흔들려 버렸다면, 아마도 그는 전혀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고, 혹독한 일종의 경험처럼 보일 수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문을 여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단에 대해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과 그분이 허용하시는 모든 것에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이 아시는, 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사역이 바울에게 열렸습니다. 병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치료되었고, 그 때, 물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그들에 대해 말합니다. **10 절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필요한 물자를 배에 실어 주더라.”** 바울의 생명으로, 그리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있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행하셨던 것을 그들은 충분히 알았고,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준비가 되자, 필요할 것들을 잔뜩 실어 주었습니다.

**11 절 “석 달 뒤에,”**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3 개월 머물렀다는 것인데, 그들은 벨리테 섬에서 겨울을 보낸 셈이고, 그는 거기서 3 개월 동안 사역할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상세하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병든 자의 형태라든지, 바울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그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그리 많은 것을 그는 소개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많은 것이 있었어요, 병든 자들이 나와서 바울에게 치료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나니,”** (이집트에서 로마로 교역하기 위해 다니는 배가 많았는데, 나일 델타는 극도로 비옥한 지역이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곡물은 거기 나일 델타에서 자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곡물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배에 곡물을 가득 싣고 로마로 가져가곤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곳은 이집트에 있는 큰 항구이고,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다른 배를 말합니다.)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와 폴룩스더라.”** 종종 이 배들은 뱃머리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을 갖기도 하는데, 이 배는 제우스의 아들들인 카스토르와 폴룩스, 쌍둥이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 절 “우리가 시라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13 절 “거기서 돌아가 레기움에 이르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 날 푸테올리에 이르러,”** 푸테올리는 로마에 있는 상업 중심의 큰 항구였습니다. 푸테올리의 바로 북쪽에는 로마의 해군기지 항구가 거기 있었고, 푸테올리의 바로 남쪽은 로마 부호들의 요트와 배들을 위한 해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업 중심의 항구로서, 동쪽으로부터 로마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항구는 푸테올리 항이었습니다.

**14 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자,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복음이 그를 앞서 로마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그의 서신[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즉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놀라운 서신을 말하는 것으로, 거기 로마에 이미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푸테올리에 믿는 자들이 있어서, 복음은 이제 로마제국 전체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15 절 “거기서부터 형제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듣고,”** (즉, 로마에서 말입니다.) **“멀리 아피이 광장과 세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자, 아피이 광장은 로마로부터 푸테올리를 향하여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고, 세 여관, 혹은 선술집은 약 53km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유명한 사람, 바울, 그들에게 서신을 써 보내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로마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거기 믿는 자들과 아주 좋은 관계와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는 도중에 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은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쯤은 알지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하나님의 가족, 즉 그리스도의 몸[역자, 교회를 말함]이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의 몸을 만나면, 집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따스함이 있고, 아주 평안합니다.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단지 내가 가족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록 많은 문화적인 것, 굉장한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단지 가정에 있다는 느낌만을 갖게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언어 장애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해도, 단지 집에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의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아덴에 있었을 때를 나는 기억합니다. 하루 저녁 우리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그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헬라어로 말할 수 없었고, 그들 또한 영어로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구두로는 아니지만, 집에 있는 것 같은 분명한 그런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죠.

케이와 나는 뉴기니아에 있는, 매우 원시적인 상태의 마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을 두루 걸어 다니면서 우리는 매우 이상하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딱정벌레들 씹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이빨들이 거의 삭아 버린 모습을 하고 앉아 있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은 붉었고, 그들의 이빨이 거의 없어졌으나, 그들은 그것을 즐겼을 것이기에, 단지 앉아서 그 물건을 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이빨 없는 미소를 지었을 것이지만, 여러분은 그들이 부정적인 땅에서 잘못되었다는 일종의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의 추장은 그리스도인이어서, 우리를 위해 축제를 명했고, 그들은 웅덩이를 팠으며, 그곳에 바위들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바위를 진짜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바나나 잎으로 그것들을 덮고, 음식을 안에 넣기 시작했으며, 다시 그 위에 바나나 잎을 덮고, 음식을 더 갖다 놓은 뒤, 바나나 잎을 또 덮고, 여러

다양한 음식을 놓고 최종적으로 바나나 잎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에 바나나 잎이 덮이고, 약 15cm 높이의 흙을 그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위들의 바닥 아래에 대나무 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웅덩이에서 하루 종일 요리를 했는데, 매 순간 토착인들은 거기에서 증기가 나도록 그곳에 물을 붓곤 하였습니다. 마침내 저녁시간이 되었을 때, 그 흙을 펴내고, 바나나 잎을 벗겨내며, 음식을 식탁에 가져왔고, 토착인들은 거기서 우리를 위해 큰 야자수 나무로 부채를 부쳐 음식에 파리가 앉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지역의 울타리 주변에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모여 함께했으나, 그들은 우리가 있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단지 그 울타리 주변에 모여만 있었습니다. 음식은, 그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매우 맛있었지만, 몇 가지는 먹기가 어려워져서, 우리는 울타리 주변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갖다 주고 싶어 꺼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그들은 매우 행복해 했고,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게 되므로 또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의 추장은 물론, 영어를 할 수 없었고, 나도 또한 그들의 방언을 할 수 없었으나, 벌써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묶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영적인 묶임이 창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원시적인 문화 안에서, 언어의 장애가 있는 곳에서, 집에 있는 것 같음을 분명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 영역을 가로질러 가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짜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포옹하고, 나도 그를 포옹했으며, 비록 서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서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들의 사랑에 대한 은혜로움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우리를 위해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이 창들을 꺼내왔고, 추장은 한 묶음의 창들을 내 손에 쥐어주었는데, 이 창들은 일불짜리 지폐로 싸여있었습니다. 추장은 통역을 통해 나에게 말하기를, '선교사들이 오고, 성경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나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가지게 된 지금은, 내가 더 이상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창들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었던 한 묶음의 창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나에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고, 또한 넓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복음으로 묶는 것이 가능한가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는 바울은 매우 평안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은혜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여행 일정에서 가로카로 갔습니다.

케이와 나는, 거기 가로카에 기거하며, 그곳에서 학교를 막 시작한, 젊은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마을의 한 남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우리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눈을 여셨다는 것과, 다른 경우에서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셨는지를 그녀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순전한 여자였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을 통하여 다시 그녀가 우리와 나누고 있었을 때, 우리는 사랑과 같은 하나의 묶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족이 된 것입니다. 집에서 11,000km 이상이나 떨어진 곳에도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한 따뜻함이 있고, 가족이라는 것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나와 아들은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땅을 밟았을 때는 이미,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 약 240km 나 떨어져 있는 토착인들이 사는 마을로 흘러 들어갔을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행기 고장이라도 당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 날개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착륙했을 때, 우리가 착륙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인사하려고 나왔는데, 모든 남자들이 허리에 걸치는 간단한 옷을 입었거나, 혹은 여인네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즉 진짜 원시적인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들은, 기도해 주기 원하여, 우리를 심한 병이 든 여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여! 다시 한번 선교사를 통해, 우리는 이야기했고, 그녀의 회심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열었고, 그녀의 사역, 그녀의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집같이 반드시 느낄 것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오는 묶임, 평안, 그리고 능력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오는 중이라 말을 듣고, 그를 만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16 절 “우리가 로마에 이르매,”** (거기에 분명히 진행된 과정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여행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가리라, 절기에 맞게 거기에 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로마에도 가야만 하리라! 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로마서로 옮겨가는데, 그들에게 쓰는 가운데, 가고자 하는 욕망을 그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올 것을 계획했는지, 계획하고 로마로 가려고 했었을 때 방해하던 일들이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호 유익이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유를 말한 대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

고 싶은 그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교회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할 것이지만, 내가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체포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배에 있었을 때, 그들은 배에서 조난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주의 천사가 다시 바울 곁에 서서, 비록 배가 파선된다 할지라도,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서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로마에 와있습니다! 긴 여행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힘이 들었지만, 지금 그것은 성취되었고,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바울에게 특별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7 절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같이 청하여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이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18 절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 절 “유대인들이 이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한 것이요 조금이라도 내 민족을 고소하려 한 것이 아니로다.” 20 절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죄사슬에 결박되었음이라.” 지금 바울은 이미 죄사슬에 묶여 있었고, 로마에서의 24 시간은 간수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간수들이 교대하는데, 이 죄사슬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견디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무엇이 이스라엘의 소망일까요?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왕,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카이사르에게 청원토록 밀어붙였지만, 그들이 대해서 진짜 아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죽음에 두기를 원했지만, 나는 결코 죽음에 내몰릴 일이 사실 아무 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유대 나라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는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 절 “이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한 적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들은 것이 없다, 우리는 당신에 대하여 들은 것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22 절 “그러나 우리는 네가 생각하는 바가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는 이 종파로 말하건대 이것이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종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일어나고 있는 종파로서,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은 유대인들의 종파이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주의의 한 종파로, 또는 한 가지로 보여 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실제적인데,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유대인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보아왔으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셨다는 것을 그는 마침내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그를 유대인으로서 자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소망대로 된 유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이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니, 그 분은 이 종파의 한 부분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유대교에서 분리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여전히 계속하여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앉은뱅이를 만나 그를 고쳐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리시키고 싶지는 않았으나, 모든 율법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단 한번에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 이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알지만, 바울에 대해 군침을 흘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종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듣기 원합니다. 아시겠죠.

23 절 “이에 그들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여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하루 종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들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책에 있는 율법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고, 대언자들의 것을 꺼내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비밀과 같은 이 많은 조건들을 성취하셨는지를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는 하나님 왕국에서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에 대하여 성경구절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구절은 또한, 사람들에게 의해, 슬픔으로 알려진, 눈물의 사람, 그 분이 멸시당하시고, 거절당하신다는 것도 말하고 있으며,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그 동일한 메시아가 멸시당하시고, 거절당하신다는 이 예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등등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과 그것들을 나눌

때, 또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메시아로, 지배하는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과 이 땅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이 오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돌아오실 것이지만,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야 하는 것이 그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말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과 함께 성경구절을 꼼꼼히 조사해 나갔습니다. 상세히 풀어나갔던 말이지요.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성경구절들을 꺼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 절 **“이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한 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니,”** 라는 구절을 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던 예언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성취된 예언들보다 더 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그들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대한 증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당신에게 증명할 수 있으며,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분이 성취하신 대언들입니다. 강력하고, 능력이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성취하신 대언들을 말합니다. 수학적으로 한 사람이 이 많은 대언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식 확률법칙에서 그것은 수학적인 불가능성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25 절 **“그들이 서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날 때에 바울이 한 마디 말을 하되,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26 절 **“이르시되,”** (바울이 여기서 성경구절의 영감으로 그의 믿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곳에서 말하기를, 모든 성경구절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 분 자신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성령님이 그 책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동안 여러 다른 저자들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끊임없는 이야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것은 이사야서 6 장으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상고할 것인데, 유명한 웃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웃시야 왕은 매우 유명한 왕이어서, 사실상 웃시야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 말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좋아했고, 모든 사람이 바라보았던 지도자와 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을 느껴야 했고, 알지만, 확실해야 했다면, 웃시야 왕, 그는 그것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번영하는 왕국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강함을 위해,

평안을 위해, 안전보장을 위해 이 사람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웃시야는 죽었지만, 그때 이사야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웃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종종 주님은 우리가 그 분을 보도록 우리에게서 어떻게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시는지 아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눈을 사람들에게 두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만약 당신이 사람에게 눈을 두면, 종종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 그 사람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있는 여러분의 안전보장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해에 웃시야 왕은 죽었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려 계셨고, 그 분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도다! 라고 하니, 그 때에 스랍이 부집게로 숯을 취하여 내 입에 대고, 이제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는 음성을 내가 들었기에,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했고, 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비록 당신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보기는 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영적인 무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적인 무지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이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병폐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27절 “그 까닭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겼기 때문이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3 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가르치려 하시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감추시려는 의도로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이며, 비유나 이야기의 목적은 진리를 감추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열어주려는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려고 예화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진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설적인 진리를 분명 받아들이고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보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그들이 듣고는 있었으나 듣지 못함으로, 그 분은 이야기하는 이야기체로 돌아서 가보셨습니다. 이사야가 묘사했던 것처럼 그들의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 때 그들이 예화 또는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비유와 같은 이야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고, 볼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했으며,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12 장에서 사람 마음의 강박함을 말하면서, 역시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는데, 지금 이사야의 같은 대언들이 어떤지, 사람의 상태를 말할 때, 보았으나 보지 못했고, 들었으나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신에 의해 눈들이 멀어진 자들에 대해 말했고, 그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문맥에서 말하기를, 볼 눈을 가지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등등, 그러므로 그들은 믿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으로, 보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슬픈 상태의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진리에 눈이 어두운 자들을 말하고, 진리에 귀가 먹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인용합니다.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가라고 해도, 말하는 것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감각하고, 그들의 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28 절 “그러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줄 너희가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지금 이것은 다시 대언된 것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갈 것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로 가보면, 바울이 몇 가지를 인용하여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29 절 “그가 이 말들을 마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지금 약간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30 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이 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지금 그는 우선 셋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을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로마의 간수에 사슬로 매여 있었으나, 지금 그의 자신을 위한 장소를 빌려 쓰며, 2년 동안이나 로마에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 네로 앞에 심문을 받기 위해 소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 네로는 25 세 정도로, 이 때 이미 자신의 색깔을, 매우 사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살해했고, 그 뒤 그의 아내인 옥타비아를 살해했던 만큼,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세력은 크게 약해진 상태로, 지금의 상원에 해당하는 기관은 수천에서 약 750 명으로 감소되었고, 단지 통치하는데 이용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권력은 제국에 점점 편중되고, 상원과 같은 기관의 힘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로마 제국은 그 당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그런 영광스러운 가운데 보지 않고, 그것이 시들어 가는 것으로 보았던 것만큼, 아주 심각하게 사악한 도시로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약 2 백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절반은 노예들이었고, 또 인구 중에 아주 적은 수의 부자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일이 없어 노는 자들로, 이들이 가장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어, 그러니까 무숙자들과 같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노예보다는 한 단계 위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황이 아주 좋지 못했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매우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의 도시에 복음이 찾아와,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시작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의 중앙인 로마에 와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의 끝에

있는 한 부분에 와있는 것입니다. **31 절 “매우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혹은 훼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로마에서, 바울에게 문을 여셨기에, 지금 다시 한번 장막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가 지금 사슬에 매여 로마에 있기에, 이것은 바울에게 쓸 시간을 허락하신 것으로 보며, 시간이 그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 실제로 그는 로마를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기에, 그것은 그에게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쓰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빌레몬에게 쓰기도 했죠. 그리고 이들의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약간씩의 통찰력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 궁궐에 전체적으로 말해졌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지키는 모든 군사들, 바울을 묶고 있는 군사들이 와서 복음에 대해 8 시간씩 들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

까?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회심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청지기들이, 그가 말했지만, 그들의 대부분이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유를 얻었다면, 아마도 에베소에 서신을 쓸 시간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교회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오늘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기쁨에 대해 말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가 잃어버렸을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홀륭함과 탁월함에 대해 말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놓쳐버렸을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우 은혜로운 증보의 사역의 아름다움인데,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잃었을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만약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그 어떤 것을 갚을 것이 있다면, 내 계좌에 집어넣기 바란다고 기록되었는데 말입니다. 거기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은 우연히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가 회심되어, 바울의 종이 된 후, 그 때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편에 보냈습니다. 누가는 거기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고, 드로비모도 한 동안 거기에 있었기에, 드로비모를 통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마가가 찾아와 바울을 방문했을 때, 그는 얼마의 양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로마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에 대해 열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사악한 도시로 데려온 것은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슬에 매인 채 남겨 놓으셨는데, 이는 그들에게 보낸 것으로 그 교회들에게 축복과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역사를 통하여 축복이 되는 이 서신들을 쓸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에 있는 이 구금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내려다보십니다. 그 분이 행하시는 것과 지금 당신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시간에 일어날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비록 우리가 볼 수 없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장소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 뒤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왜 성경구절이 환란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아야 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면 정한 때에 거두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더라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볼 수 없더라도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것이 매우 귀중한 학습이 됩니다. 우리가 눈을 주님과 영의 일에 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행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사역을 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모델을 갖게 된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으로 시작된 것을 아는데, 일백하고, 이십 명이 수천, 수백만으로 성장했습니다. 로마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의 모델을 관찰해 볼 때, 우리

또한, 주님,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의 맨 끝에서 당신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을 가져오려고 행하셨던 것에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당신의 명령들을 따르려고 여기에 있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